

작황 부진 '오이값 폭등'

주산지 충청지역 기상악화 원인...1년 전 비해 636% 올라

aT 광주전남본부

작황부진과 최근 잦은 비로 인한 일조량 부족으로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오이 값이 크게 오르고 있다.

28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출하지역 증가 등으로 채소류 가격이 전달보다 내림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년 보다는 전반적으로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8일 기준 광주 서구 양동시장에서 거래된 오이(취형) 100kg 소매가격은 한달 전 7000원에서 9000원으로 가격이 28.5% 올랐다. 1년 전 5500원과 비교할 경우 가격이 63.6%까지 폭등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이 가격 폭등은 주산지인 충청지역의 기상악화가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봄배추는 한달 전 1포기 당 3000원이던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만 1년 전 2000원과 비교했을 때 50%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무 가격은 한달 전 1개당 2500원에서 가격 변동이 없었지만 1년 전 1500원과 비교하면 66.6%까지 폭등했다.



양념류인 깬마늘과 양파는 저장 불량 출하와 햇품 출하량이 맞물리며 공급 증가로 내림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사계절 사방받는 쌈채인 상추 가격은 작황 호조와 출하 대기 물량이 한꺼번에 유입되면서 1달 전 100kg당 700원에서 600원으로 가격이 14.3% 내렸다.

2주전 1kg당 5300원에 거래된 방울토마토는 4700원으로 가격이 11.8%내렸다. 방울토마토는 출하지역이 강원도까지 확대되면서 소비

분산으로 가격 하락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축산물 중 한우(등심)는 지난달 물량부족으로 도축 마릿수가 감소하면서 가격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조사됐다.

aT 관계자는 "과채류 출하지역이 확대되고 생육 여건이 좋아져 공급량이 늘어나고 있지만 월말을 앞두고 각종 공과금 지출 등을 이유로 씹음이 줄어들면서 소비 부진으로 가격이 전반적으로 내림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말했다.

포스코, 광양에 리튬 2차전지 양극재 공장 건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과 공장 부지 매매계약

포스코가 29일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과 양극재 공장 건설 부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2019년까지 광양에 연산 6000톤 규모의 양극재 공장을 건설한다고 밝혔다.

부지 규모는 16만 5287㎡(약 5만평)로 이번 양극재 공장 증성을 위해 지난 11일 이사회에서 포스코ESM에 1130억원을 증자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포스코는 이 부지에 내년까지 양극재 공장을 건설하고 2022년까지 5만톤 생산체제로 확대할 예정이다.

포스코 ESM 구미공장 1만2000톤의 생산능력을 합하면 연간 생산규모는 6만 2000톤에 달하게 된다. 이는 전기차 1000대분의 배터리 리튬 만들 수 있는 분량이라는 게 포스코의 설명이다.

2022년 광양 양극재 공장 증설이 완료되면 매년 2조원 이상의 매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1000여명의 직접 고용인력 창출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는 현재 8000톤 생산 규모인 구미공장에 4000톤을 증설하기로 했지만 1만 2000톤 규모로는 급증하는 2차전지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리튬 생산 시설인 PosX 공장이 있는 광양에 추가 생산기지를 확보하기로 했다.

포스코는 광양 양극재 공장 건설에 이어 지난 2월 호주 필리바사와의 공급계약을 통해 확보한 리튬정광을 원료로 하는 연산 3만톤 규모의 리튬 공장을 광양 공장 인근에 2020년까지 건설할 계획이

다. 뒤이어 2만톤 규모의 니켈 공장도 건설해 이 지역을 이차전지 소재 복합단지로 조성할 예정이다.

이차전지소재 단지 구축으로 원소재인 리튬, 니켈과 양극재 공장 간 공정 단순화 및 불투명 절감 등 사업 간 시너지를 크게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포스코는 지난 1월 중국의 화유코발트사와 양극재 및 전극체 생산공장 합작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3월에는 칠레 양극재사업자로 최종 선정되기도 했다.

최근 전기차와 산업용 에너지저장장치(ESS), IT용 대용량 배터리 등에 대한 수요가 급증해 2차전지의 리튬 소재인 양극재 시장도 2016년 21만톤 규모에서 오는 2020년까지 86만톤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

중기부 광주전남청사 '벤처창업지원센터'로 탈바꿈

現 농성동서 내년 9월께 동천동으로 이전 예정

리모델링해 벤처창업기업 컨트롤타워 기능 담당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청 청사가 '광주전남벤처창업지원센터(가칭)'로 탈바꿈 된다.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청은 신청사가 준공되면 현 청사를 효율적인 벤처창업지원을 위해 '광주전남벤처창업지원센터(가칭)'로 리모델링해 오는 2019년 12월께 문을 열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광주 서구 농성동에 소재한 현 중기부 광주전남청은 오는 2019년 9월께 서구 동천동 신청사가 준공되면 이전하게 된다.

새로 구축되는 광주전남벤처창업지원센터는 벤처창업지원 컨트롤

타워와 일관지원, 커뮤니티 활성화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센터에는 중기부 광주전남청 벤처창업팀이 상주해 벤처창업지원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벤처창업 인프라 강화에 도움을 줄 창조경제혁신센터, 벤처캐피탈, 엔젤클럽, 팀스 운영사, 액셀러레이터 등 벤처창업지원기관과 투자기관, 이노비즈기업협회, 여성벤처협

회 등 관련단체도 입주할 예정이다.

센터를 찾는 창업기업은 한 번 방문으로 다양한 벤처창업 지원 정책 정보를 제공받게 되고, 창업보육에서부터 정책자금, 연구개발(R&D), 투자 등 성장 단계별 일관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광주전남청은 벤처창업지원 기관과 투자자, 창업기업 간 커뮤니티 활성화에 필요한 별도의 공간도 마련한다.

이 공간에서는 성공창업 지원을 위한 지속적인 네트워크와 상호 정보 교환, 공동지원, 투자유치 활동이 연중 이뤄질 예정이다.

박일서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장은 "현재 광주과학기술원에 입주해 있는 벤처창업지원센터가 광주 서구로 옮겨가면 벤처창업 지원기관과 창업기업이 한 건물에 입주하게 돼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진형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청장도 "광주전남벤처창업지원센터가 문을 열면 창업지원 입주기관과 창업기업과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 광주전남 지역이 벤처창업의 메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서은홍 기자



지역공감·미래창조·정문리뷰
湖南新聞

전화 062)224-5800
팩스 062)222-5548

이런저런 이유로 소멸되는 카드포인트 매년 1300억원

사용과정서 현금화 제약·제휴가맹점 제약 등

신용카드사에서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는 카드포인트가 정착 소비자는 여러 제약조건에 걸려 쓰지도 못해 매년 1000억원 넘게 소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카드사에 적립된 포인트는 총 2조912억 포인트다. 이중 1309억 포인트가 사용되지 못한 채 소멸됐다. 포인트를 현금처럼 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소비자가 쓸 수 있는 연간 1300억원이 증발된 셈이다.

카드포인트는 카드사에서 상품을 홍보하고 회원을 모집하기 위해 적극 활용하는 대표적인 마케팅 수단 중 하나다. 포인트는 실제 현금처럼 사용하거나 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어 소비자에게도 유용하게 쓰인다.

최근 소비자의 카드이용 증가와 카드사 간 회원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며 포인트 적립액은 매년 증

가하고 있다. 포인트액은 지난 2014년 2조3580억원에서 매년 늘어 지난해에는 2조912억원이 적립됐다. 하지만 지난 2014년부터 1300억원 현금화 가능한 포인트가 여전히 매년 소멸되고 있다.

소멸되는 대표적인 이유는 포인트 사용과정에서 '현금화 제약'과 '제휴가맹점 제약' 등이 걸려서다.

소비자는 카드포인트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하거나 카드대금 결제 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받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카드사에서 가맹 1만 포인트 이상만 현금화가 가능하다는 식으로 하한선을 정하면서 소액은 사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또한 포인트를 현금화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콜센터 등 특정채널을 거쳐야만 현금화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제휴포인트 문제도 발견됐다. 제휴포인트란 카드사가 제휴를 맺

은 특정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다. 가령 자동차 포인트나 주유포인트 등이 이에 속한다. 문제는 제휴 가맹점이 휴폐업에 들어가거나 카드사와 제휴가 중단되면 소비자가 사용하기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제약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포인트 규모에 상관없이 카드대금과 상계하거나 카드대금 결제계좌로 입금해주는 방식으로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앞으로 소비자는 홈페이지나 콜센터, 휴대폰 앱 등에서 현금화를 신청할 수 있다. 모든 카드사의 모든 포인트 현금화가 가능하며, 카드해지시 잔여 포인트도 현금화할 수 있게 개선했다.

또한 제휴 가맹점이 휴·폐업하거나 제휴조건이 변경된 경우, 해당 포인트를 어디서든 쓸 수 있는 대립포인트로 변경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번 제도개정으로 117만명 소비자가 쓰지 못했던 약 330억 포인트가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산부 배려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